



1, 4 2018 아트 바젤 홍콩이 화려한 막을 내렸다. 데이비드 즈위너 갤러리 부스는 미술가 제프 쿤스가 직접 방문해 사진 공세를 받았다. 2, 3 센트럴 갤러리 디스트릭스를 완성하는 H 퀸스 빌딩 오픈이 화제를 모았다. H 퀸스 10층의 탕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에서는 중국 미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개인전이 열렸다.



아시아 '문화 허브'로 진화하는 홍콩

2018 아트 바젤 홍콩에 32개국 248개 갤러리 참여
방문객 8만명 육박...세계 최고 아트 페어로 발돋움



폴 매카시의 'White Snow Head'

과거 홍콩은 향료와 향나무를 실어 나르던 무역항이었다. 홍콩의 항구는 향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런 홍콩을 '향기로운 항구(香港)'라고 불렀다. 이제 홍콩은 예술 작품을 아시아에 소개하는 명실상부한 문화 허브로 진화하고 있다.

글 이소영(프리랜서 기자) · 사진 아트바젤 홍콩, 홍콩관광청, 아트 센트럴, 이소영

예술 도시로서 홍콩의 찬란한 부상은 지난 3월 28~31일 나흘간 열린 제6회 아트 바젤 홍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2개국 248개 갤러리가 참여한 이번 아트 바젤 홍콩은 빅뉴스를 쏟아내고 막을 내렸다. 미술품 전시·판매 행사인 아트 바젤은 1970년 설립됐다. 스위스 바젤과 미국 마이애미에 이어 2013년부터 홍콩에서도 시작됐다. 이제는 모던 아트와 현대 미술을 망라하는 작품을 출품·판매하는 세계 최고의 아트 페어로 발돋움했다.

홍콩컨벤션센터(HKCEC)에서 열린 2018 아트 바젤 홍콩은 방문객이 8만 명에 육박했고, 인기 작가 작품은 VIP 프리뷰 첫날에 이미 다 팔렸다는 이야기가 무성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런던의 레비 고비 갤러리가 출품한 윌럼 데 쿠닝의 그림은 개장하자마자 370억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살아 있는 가장 비싼 미술가 중 한 명인 제프 쿤스는 데이비드 즈위너 갤러리 부스를 방문해 관람객들에게 사진 촬영 요청을 받았다. 제프 쿤스의 거대한 새 조각 '블루버드 플랜터'와 서양 명화에 관람객을 비추는 푸른 구체를 붙인 '게이지 볼(Gazing Ball)' 시리즈는 인기 촬영 스폿이었다.

하우저 & 워스 갤러리는 루이스 브루주아와 폴 매카시, 로니 혼 등의 조형물을 출품해 방문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소더비 인스티튜트 김기범 교수는 "아트 바젤 홍콩이 아트 바젤 마이애미 위에 우뚝 섰다"고 평했다. 홍콩이 세계 미술 시장을 주도하는 또 하나의 도시가 됐다는 얘기도. 이는 아시아 미술 시장의 중심인 중국이 안정화되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 Jacquie Manning



©Jacquie Manning

아트 바젤 홍콩의 성공은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오랫동안 유럽이 미술의 중심지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미술의 흐름이 경제대국 미국으로 이동한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아시아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니 서양에서 본 새로운 아트 마켓은 아시아에 분명해 보인다. 사실상 홍콩은 이미 30여년 동안 아시아 미술 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상태다. 필립스, 크리스티, 소더비 등 유명 경매회사들이

홍콩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아시아 시장에 맞춘 마켓이 형성돼 있다. "억만장자 수와 자산 합계 같은 요소만 보더라도 미술 시장에서 아시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홍콩은 문화의 소비자일뿐만 아니라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욕망이 있는 도시죠. 공공 기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난 컬렉션을 갖춘 다수의 사립 박물관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리먼 머핀 갤러리의 라셀 리만 대표는 이번 아트

1 홍콩컨벤션센터 건너 편으로 위성 페어인 아트 센트럴이 열렸다.
2 아트 센트럴에 출품된 중국 미술가 리우 불린의 신작
3 리먼 머핀 갤러리는 서도호와 이불을 중심으로 김버트&조지, 테레사타 페르난데즈의 작품을 전시했다.



3

바젤 홍콩은 세계 미술의 중심지가 아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자리였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도시 전체가 아트에 집중하는 홍콩

아트 바젤 홍콩이 개최된 홍콩컨벤션센터(HKCEC)를 중심으로 홍콩은 축제 분위기였다. 고급 샴페인이 전시장마다 넘쳐 흘렀고, 밤마다 화려한 파티가 열렸다. 세계의 미술 애호가들이 몰려들어 축제를 즐겼고, 대중도 즐겁게 참여했다.

HKCEC 건너편에서 열리는 위성 페어인 아트 센트럴에는 우리나라의 갤러리현대 등 총 104개의 갤러리가 참여했다.아트 센트럴과 아트 바젤 전시장을 연결하는 해변에는 허버 아트 조각 공원이 만들어졌다. 김홍석 작가가 브론즈로 만든 대형 테디 베어 조형물을 출품해 방문객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페어 기간에 맞추어 센트럴 지역에 7개의 국제적 갤러리들이 입점한 H퀸스 빌딩이 개관해 화제를 모았다. 뉴욕 3대 화랑인 데이비드 즈위너 갤러리, 영국의 허우저 & 위스 갤러리, 중국의 펄 렘 갤러리 등과 우리나라의 서울옥션이 입점해 동시에 오프닝 파티를 열었다.

원래 센트럴 지역은 갤러리들이 입점한 페더 빌딩과 중국농업은행빌딩이 있어 미술 애호가의 성지로 불렸는데, H퀸스 빌딩 개관과 함께 세계



6



페로렝 갤러리에서는 미국 작가 카우스(KAWS)의 전시가 열려 젊은 세대의 방문이 이어졌다.



4 센트럴에 위치한 화이트 큐브 갤러리 입구
5 스푸루스 마거스 갤러리의 페어 부스
6 타이페이에 위치한 예술리트 갤러리 페어 부스

유레가 없는 갤러리 디스트릭트로 거듭났다.

리먼 머핀 갤러리의 라셀 리만 대표는 이번 아트 바젤 홍콩의 큰 변화는 페어 밖에 있다고 말했다. "홍콩이라는 도시 자체가 아트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공 프로젝트도 많았으며, 국제적 갤러리들의 오픈이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리먼 머핀 갤러리는 2013년 홍콩에 오픈하며 아시아 시장에 처음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페어를 둘러싼 홍콩의 아트 현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지난 5년 동안 벌어진 놀라운 진화를 지켜볼 수 있었지요." 아트 바젤과 손잡은 아트 기관의 다채로운 전

시도 가득했다.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여성 미술사를 만든다(Women Make Art History)' 전시는 미술계 전단 편향에 관한 화두를 제시했다. 엠펠러스 파빌리온에서는 '최초의 BMW 아트 여행' 수상자인 샘슨 영의 신작 전시가 열렸다.

이번 홍콩 아트 바젤에서는 한국의 미술가와 갤러리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 갤러리는 모두 11곳이 참여해 국제적 수준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페어의 중심인 '갤러리즈(Galleries)' 섹션에 참여한 리안 갤러리, 학교재, 원앤제이 갤러리는 한국 작가의 작품만 출품했다. 이는 한국 작가의 작품성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일 것이다. 리안 갤러리는 남춘모, 이건용, J. Park(박종규), 하태범 등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작가의 작품을 선택했다. 단색화 이후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더는 단색화에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 작가의 수준은 상승세를 보인다.

역사적 테마를 담은 개인전을 선보이는 '인사이트(Insights)' 섹션에 참가한 우순 갤러리는 미술가 이강소, 조현화랑은 이배의 작품을 출품했다. 해외 갤러리 부스에서도 이우환, 이불, 서도호, 양혜규, 송현숙, 백남준과 같은 국제적 작가들의 작품을 심사리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제 한국 작가로 분류되지 않는 스타다. 특히 서도호는 리먼 머핀 갤러리와 STPI 갤러리 등에서 출품되어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다.



쉬몰드 프레스콧 로드(Chemould Prescott Road)

이번 아트 바젤 홍콩에서 인도 갤러리들이 여러 섹션에 고루 참여한 것이 특징이었다. 인도 뭌바이에 위치한 쉬몰드 프레스콧 로드는 1963년에 개관한 유서 깊은 곳으로, 인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출품하며 관심을 모았다. 최근 인도 갤러리의 부상과 재평가의 대두는 경제 발전과 미술 시장 성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N S 하르사, 바루니카 시라프, 아디티 싱 등의 작품을 출품했는데, N S 하르사는 지난해 일본 모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던 국제적 작가다. www.gallerychemould.com

2018 아트 바젤 홍콩에서 주목해야 할 갤러리들



자비에 콘템포러리(Jhaveri Contemporary)

인도 뭌바이 해변에 자리 잡은 전망 좋은 갤러리. 신진 작가의 개인전으로 구성하는 디스커버리즈(Discoveries) 섹션에 미술가 알리 카짐의 작품을 출품했다. 작가는 고흥 라호르에서 영감을 받은 설치 작품으로 파키스탄이 처한 현재 정치 상황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했다. 수채 물감으로 그린 페인팅과 돌을 연상시키는 도자기 조형물이 잔잔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호평을 받았다. www.jhavericontemporary.com



그린 라프트리(Greene Naftali Gallery)

뉴욕 첼시에 있는 이 갤러리는 미술가 양혜규의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홍콩을 방문한 양혜규 작가는 2018년 볼프강 한 미술상 수상 및 독일 쾰른 루트비히 미술관에서의 회고전이라는 뉴스를 전해왔다. 종이에 스프레이로 페인팅한 'Non-Folding Geometric Tipping' 시리즈와 석 방울로 만든 조형물 'Sonic Lunar Eclipse' 시리즈 등을 전시했다. www.greenenaftaligallery.com



리안 갤러리(Leeahn gallery)

서울과 대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리안 갤러리는 남춘모, 이간용, J. Park(박종규), 하태범 등 4명의 한국 작가 작품을 출품했다. 남춘모 작가의 입체 회화는 유럽에서 인기가 높는데, 프리뷰 첫날 부스를 찾은 베아트라이펜사이트 관장으로부터 2019년 루트비히 미술관 개인전 확정 소식을 전해 들었다. J. Park은 지난해 홍콩 아트 바젤에서 호평받은 작가로 CCTV·바코드 같은 21세기 현대 물질 문명에서 영감을 받아 다채로운 작업을 만든다. www.leeahngallery.com



코먼웰스 앤드 카운실(Commonwealth and Council)

LA의 코먼웰스 앤드 카운실은 한국계 콜롬비아 작가인 갈라 포라스 김의 작품을 출품해 'BMW 아트 여행(BMW Art Journey)'의 '디스커버리' 섹션 3인의 미술가에 선정됐다. BMW 아트 여행의 명성은 1회 수상자 샘슨 영이 베니스비엔날레 홍콩관 대표로 참여하며 견고해졌다. 수상자는 여름에 발표된다고 하니 기대해볼 만하다. 갈라 포라스 김은 미술관 관례와 자연을 변형에 관심을 가진다. commonwealthandcouncil.com

**“낙찰되었습니다!”
흥미진진한 미술품 경매**



홍콩은 세계 3대 경매회사인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가 모두 경매를 여는 도시다. 한국에서는 프리뷰 전시를 진행하지만 경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떨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할 것이다. 지난 4월 26일, 서울 사무소 오픈 파티를 성공적으로 치른 필립스.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시계와 보석 등 디자인 경매로도 유명하다. 5월 27일 열릴 이브닝 경매와 28일의 보석 경매 그리고 29일 시계 경매를 위한 프리뷰 전시가 5

월 24일부터 28일까지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경매에서 주목할 대목은 유명 수집가 닉 쉬얼스 컬렉션이 출품돼 H퀸스 빌딩 G층에서 특별전시한다는 것이다. 닉 쉬얼스는 아시아 현대 미술 컬렉션으로 알려진 수집가로, 컬렉션은 위 에민준, 장 샤오강 등 중국 현대미술과 아시아 모던 작가들의 대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립스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중국의 거장 자오 우키의 추상 회화 작품으로, 과연 얼마에 낙찰될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크리스티 역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아시아 근현대미술을 비롯한 와인, 시계, 보석, 중국 고서화, 중국 도자기 등 다양한 주제의 경매를 개최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아시아 20세기 근현대미술 이브닝 경매는 5월 26일, 아시아 현대 미술 경매는 27일에 HKCEC 컨벤션 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브닝 경매는 좌석이 부족할 수 있지만 굳이 작품을 구입하지 않을 거라면 서서 보는 것도 괜찮다. 작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심장 박동 소리도 올라갈 것이다. 신기록이 달성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할 수도 있다. ♡